

필요광장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세계시장에서 경쟁은 국가별로도 이뤄지지만 경제블록 단위로 전개되기도 한다. 경제블록은 특정 지역의 국가들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관세 철폐 등 서로 제한 없는 무역을 형성하는 경제단위를 말한다. 경제블록 밖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무역 장벽을 쌓는 경우도 있다.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이 대표적인 경제블록이다. 한 나라가 자국의 자원과 기술력만으로 는 경제발전이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공유해 개별 국가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 규모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경쟁적으로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이유다.

을 연말에 아시아에서 또 하나의 경제

인도네시아에서 찾는 ‘한류 4.0’

블록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ASEAN(동남아국가연합) 소속 10개 국가가 참여하는 AEC가 출범하면 인구 6억 명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의 인구를 자랑하고 2조 3000억 달러의 GDP로 세계 7위 규모인 거대한 시장이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ASEAN은 35세 이하 인구가 세계 최대이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지난 15년간 6%대로 앞으로는 10년 이상 7%를 웃돌 것이라 전망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3대 교역 시장이기도 하다. AEC가 또 하나의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AEC의 리더이자 맹목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2억5000만 명의 인구가 우리 나라보다 아홉 배나 넓은 땅을 가진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향후 발전 가능성도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인구의 87%가 이슬람교도로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지만 다른 많은 이슬람 국가와 달리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들도 많은 정도로 개방적인 분위

기를 갖고 있어 외국문화에 대한 수용성도 높은 편이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으로 또 한 번 도약이 예상되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콘텐츠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본도 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콘텐츠산업을 공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BIMA-X’는 인도네시아의 성스러운 상징물인 ‘가루다’를 모티브로 한 영웅 스토리를 담았다. 일본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인도네시아 배우와 언어로 제작해 인기를 끌었다.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회사인 MNC그룹과 함께 일본의 이토추상사(Itochu Corporation)가 제작한 것으로, 이토추상사가 ‘BIMA-X’의 전체 라이선스를 관리하고 장난감을 비롯한 관련 상품을 일본 본사가 판매하는 등 일본 문화콘텐츠의 성공적인 인도네시아 진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추종해진 일본에서의 한류 열풍과 중국의 자국 콘텐츠 산업 보호 분위기 확산으로 한류 시장의 다각화 등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 이러한 우리 콘텐츠업계가 주목하는 곳도 바로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에는 한류에 대한 젊은 수요층

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한류 열풍의 재점화가 용이하고 성공적으로 연착륙을 하게 될 경우 향후 아세안 지역 및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의 이슬람국가로의 진출에 거점과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경제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잠재력이 커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 진출한다면 문화 한류를 비즈니스 한류로 진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우리 콘텐츠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오는 10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시장개척 로드쇼’를 개최한다.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여 인도네시아에 우리 콘텐츠를 소개하고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00년대 초반 겨울연가, 대장금 등 드라마 수출로 출발한 한류는 K팝(한류 2.0), K컬처(한류 3.0)를 거쳐 이제 ‘한류 4.0’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빅 컬러 콘텐츠를 무기로 인도네시아 진출에 성공해 한류 4.0시대가 빠른 시일 내에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법조칼럼



조영희 변호사

일반인들이 법조인들의 업무 처리방식에 관하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오해 중 하나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재판이 있는 날에만 일을 하고 재판이 없는 날에는 모두 일을 하지 않거나 무척 쉬엄쉬엄 할 것이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이 없는 날, 판사는 많은 양의 기록을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검사는 보통 진실을 말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범죄사실을 입증할만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거쳐 사실관계를 법률요건에 맞추어 정리하고 이를 면밀히 재구성

휴정기에 즈음하여

하여 범인, 검찰에 제출할 서면작성 등을 하느라 오히려 더 바쁜 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변호사들의 경우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나 주말에도 갑(甲) 원고의 공격방법과 을(乙) 피고의 방어방법, 피고인과 피의자들의 무죄 입증방법이나 정상참작사유 등을 고민하느라 하루 종일 사건 생각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기도 합니다. 다른 두 직역을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으나 다른 두 직역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상황은 역시 비슷하리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살짝 보태자면 법조 3륜(輪)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1년 365 일 쉬는 날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기계라도 정기적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기름칠을 해주어야 그 기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더 오래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조 3륜을 맡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가끔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는 없지만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 가 여름 휴정기입니다. 즉 법원은 구속만 하거나 도래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등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째 주까지, 2주 동안은 재판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법조 3륜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질 여름휴가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 기간 동안 모든 법조인이 모두 손을 놓고 쉬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는 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휴정기를 이용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깜짝’ 사건(어렵고 복잡하고 해결해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사건)을 오랫동안 붙들고 고심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 일을 시작한 1, 2년 차들은 이마저도 여의지 않아 재판기일에 출석하는 곳에 구멍을 내고 살면서 수초의 뿌리까지 뜯어 먹거나 수서곤충 등을 마구 잡아먹어 치우며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특별한 천적이 없어 급속한 증식이 우려되고 있다. 가시박은 북아메리카 원산 외래식물로 도로와 하천을 따라 확산되며 다른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거나 날카로운 가시는 동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이렇게 유입된 외래종들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물다양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이 위협받으면 그 결과는 생태계 파괴와 유용한 생물자원 감소로 돌아와 결국 인간에게도 피해를 입힌다.

생태계는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쉽지

되더라도 휴가기간 동안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는 것이 변호사의 숙명입니다.

때때로 떠오르는 사전 생각과 수시로 걸려오는 의뢰인들의 전화나 문자메시지, 메일 등으로 그냥 사무실에 머무는 때보다 보이지 않는 공포심에 근심이 더욱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없고 문자나 메일을 확인하고도 답장을 보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저 역시 이번 여름휴가 기간 동안 많지는 않았지만 걸려오는 의뢰인의 전화에 응대하고 휴정기가 지나면 바로 기일이 잡혀 있는 사건들에 대한 서면을 구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 휴가기간으로 인정되고 있는 휴정기에도 사건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변호사는 ‘스트레스 청부업자’라는 선배 변호사님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휴정기라는 이름의 달콤한 기쁨을 한 번 거쳤으므로 다가오는 가을은 더 힘차게 달려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기 고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침입

대형 선박에 묻어서 들어온 뒤 국내 환경에 적응해 살아간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약 1100여종의 외래종이 유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외래종은 우리의 자연생태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생태계의 보고인 민통선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개구리는 물론 뱀까지 잡아먹고 새우, 잠재 양식장에 무차별적으로 침입해 양식장을 훼손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황소개구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뿐만 아니라 외래종은 새로운 병충해를 유입해 국내 생태계에 전파하기도 한다. 심지어 종(種)간 혹은 이종(異種) 간의 잡종을 형성해 원종(原種)을 위협하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토종 유전자는 점차 실재기를 잃게 된다.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표적인 외래종으로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어 양봉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아열대 외래종 등검은말벌 외에, 황소개구리, 붉은귀개, 뉴트리아, 블루길, 배스, 꽃매미, 가시박, 돼지풀, 미국쑥방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꽃매미는 포도, 복숭아, 등 과수

농가나 산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심지어 대도시에서도 대량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나 고공의 정원에 있는 조경수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꽃매미는 중국에서 유입되었는데 2004년 천안지역에서 몇 개체가 확인 된 이래 이제는 제주도 등 섬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990년대 초 식용 및 모피용으로 국내에 반입된 뉴트리아는 저수지나 논둑 같은 곳에 구멍을 내고 살면서 수초의 뿌리까지 뜯어 먹거나 수서곤충 등을 마구 잡아먹어 치우며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특별한 천적이 없어 급속한 증식이 우려되고 있다. 가시박은 북아메리카 원산 외래식물로 도로와 하천을 따라 확산되며 다른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거나 날카로운 가시는 동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이렇게 유입된 외래종들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물다양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이 위협받으면 그 결과는 생태계 파괴와 유용한 생물자원 감소로 돌아와 결국 인간에게도 피해를 입힌다.

생태계는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쉽지

않다. 또한 생태계의 파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2013년 기준 국내유입 외래종중 국가관리 생태계 교란종은 18종(동물 6종, 식물 12종)에 불과 하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태계에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외래종에 대해 사후약방문이 아닌 철저한 예방 및 방제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식용, 연구용, 자원조성용 등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외래종을 국내에 유입할 때는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요즘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늘고 있는 애완용동물이나, 관상용식물 도입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미 유입된 외래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외래종과 고유종의 구별법, 외래종 취급요령 등을 국민이 알기 쉽게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외래종 퇴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운주사 천불천탑 세계유산 등재되도록

화순 운주사의 ‘천불천탑’(千佛千塔)과 ‘와불’(臥佛)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한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운주사 석불석탑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이달 중 잠정 목록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 잠정 목록 신청서를 오는 11월까지 유네스코에 제출한다.

앞서 전남도와 화순군은 2005년부터 운주사 석불석탑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해 왔다. 도는 운주사 석불석탑이 독특성·군집성·조형성 등에서 세계적 가치를 보유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운주사는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천불산에 있는 사찰로, 연화탑과 굴미륵석불, 보물 제796호인 9층 석탑, 보물 제797호인 석조불감, 보물 제798호인 원형 다층석탑, 부부 와불 등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 불상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와불은 천불천탑 중 마지막 불상으로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이다.

이 와불이 일어나는 날, 이 땅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전해 온다. 운주사에는 도선국사가 하룻날 하룻밤 사이에 천불천탑을 세워 새로운 세상을 열어 보고자 했다는 전설이 어려 있다. 황석영 씨는 소설 ‘장길산’에서 장길산과 노비들의 미완의 혁명지로, 미륵산양의 성지로 운주사를 세상에 알리기도 했다.

전남 도내에는 화순 고인돌군이 유일하게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만약 천불천탑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다면, 기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군과 함께 화순은 2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역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군민과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치단체의 꾸준한 노력이 이루어져 운주사 석불석탑이 반드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인 운전능력 평가 기준 새롭게 만들어야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고령화로 노인 운전자가 늘고 있는 것에 비례해 교통사고 발생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노인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3년 7개월간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6610건이었다. 특히 지난 2년 새 노인 운전자들이 낸 교통사고 발생률이 29%나 증가했다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가운데 노인 운전자들이 낸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69명으로 전체 사망자 1959명의 1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37건당 1명이 사망한 데 비해 노인 교통사고는 18건당 1명이 숨진 것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사

망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시력이나 사물 인식 능력, 청력, 반사신경, 근력 등의 감퇴로 인한 운전 능력의 저하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짧은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적용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많은 일본도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 시 강습 예비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운전 면허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기를 적성검사를 하는 등 5년에 한 번꼴로 함으로써 일반 운전자와 차별화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처럼 본인 동의하에 면허증을 반납하게 한다거나 1년에 한 번 꼴로 적성검사 시기를 단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야간 시력과 반사신경 능력 등 노인운전자를 위한 별도의 운전능력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無等鼓

지난해 말, ‘비자금 정부’라는 것을 우연히 접할 기회가 있었다.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자체 사업을 점검하던 업체가 만든 것이라고 했다. 슬쩍 보아도 정부에 나온 금액을 모두 합치면 액수가 꽤 될 듯했는데, 그 내역을 보는 재미(?)가 여간 쓸쓸한 것이 아니었다.

물론 정상적인 지출도 상당수 섞여 있었지만, 알 만한 인사와 기관들이 여가까지 등장했다. 또 업체에서 제공했

다. 금액도 수만 원대에서 시작해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 수년 전 일이었다. 돈을 준 이유와 날짜, 받은 사람의 이름과 소속, 돈을 준 사유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업체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정리를 해 놓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다.

장부를 덮고 나니 의문이 생겼다. “이렇게까지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장부’가 앞에 있으니 답은 이미 나와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야만 사업이 된다’는 것이 정답이라는 이야기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그리스가 지난 10년간 뇌물과 탈세 등으로 잃어버린 돈만 해도 155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리스 부패의 뿌리를 ‘그리스인의 마음과 제도 사이에 깊숙이 스며든 가치관의 위기’에서 찾은 이 기구는 ‘부패를 용인해 온 그리스인의 오랜 관습이 부패 방지만큼 거부를 포기하게 하는 속성론과 맞물려 일종의 작은 부패를 지속시키고 개혁을 무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기구의 통렬한 지적에서 ‘그리스’를 ‘한국’으로 바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부패의 결과 지금 그리스

국가 부도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김자호 주필 이홍재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인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72)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